

“두려움에 맞선 용기...5·18 항쟁정신이 진실보도 버팀목”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3 시사주간지 ‘뎀보’
(인도네시아·2013년 수상)

부당행위에 끊임없는 저항이 광주정신
광주시민들 대 민주화 가능케 한 산증인
‘뎀보’ 영문판 편집장 헤르민씨



“5·18 정신이요? 용기를 갖고 자발적으로 끊임 없이 부당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뎀보 기자들이 추구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뎀보 편집국에서 만난 영문판 편집장 헤르민(여·Hermien)씨는 5월 정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5·18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광주시민들이야말로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가능케 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광주인권상 시상식 참가자 광주에 방문한 그는 5월 항쟁을 토대로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한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의미, 인권운동 상황 등을 접한 뒤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광주를 보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 인도네시아 대학살사건을 기획 취재하는 후배 기자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예로 들어 자주 말한다.

군부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 조사가 미흡한 점 등 여러 면에서 5·18과 인도네시아 대학살사건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주의는 발전과 후퇴를 끊임없이 한다”며 “5·18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위협 요소가 없더라도 끊임 없이 투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988년 군부독재가 몰락한 이후 민주화를 향해 고속 질주 중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민주·인권수준이 상당부분 정점에 올랐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자만하면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한국도 어려운 난국을 거뜰히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5·18 왜곡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빨리 등 돌린 자들이 관련 사실이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똑같이 말할 것”이라며 “5·18이 후세들에게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일부 세력에 의한 루머가 (5·18의 역사적) 진실에 섞이지 않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시사주간지 ‘뎀보’ 편집국에서 각 팀장들이 취재 회의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이종행기자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으킨 민주주의의 승리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수하르토 대통령의 군사정권이 무너지면서 민주화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5·18 저항정신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5km 떨어진 팔메라 바랏(Palmerah Barat)지역 시사주간지 ‘뎀보’ 편집국에서 만난 인도네시아어판 편집장 아리프 저키프리(Arif Julkiyri)씨는 5·18에 대해 “두려움에 맞서고 버틴 용기가 이뤄낸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단체인 뎀보는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고 부당한 권력과 부패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다.

뎀보는 지난 1998년 군부정권인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모두 세번이나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뎀보는 지난 1974년 학생 시위 관련 군부·경찰의 과잉 진압 기사로 2~3일간 발행 금지를 당한 데 이어 1982년엔 이른바 ‘와이트 그룹’(정당 선택을 하지 않는 이들) 관련 기사로 3개월 간 폐간됐다.

수하르토 정부는 1994년 독일 합정 구입건 부정을 폭로한 뎀보를 또다시 폐간조치했다. 당시 뎀보 기자들은 뿔뿔히

군부독재 시절 세차례 발행금지 처분

1998년 폐간 4년만에 복간

권력·부패 맞서 민주·인권 향상 이끌어

흩어졌지만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정신은 버리지 않았다.

뎀보는 지난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몰리면서 복간됐는데, “언론을 탄압한 정권은 결국 언론과 함께 사라진다”는 교훈을 영입한 언론단체로서 남기지며 복간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직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자국의 민주화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4년 만에 복간됐다.

뎀보의 발행 목적은 민주화와 인권향상을 위한 진실보도다.

뎀보와 관련이 있는 인사일지라도 부당한 권력과 부정부패 앞에서 진실보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문판 편집장 헤르민(여·Hermien)씨는 “그간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5·18 당시 젊은 학생들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과 같다. 5·18과 뎀보가 추구하는 공통 정신”이라고 말했다.

현재 뎀보는 지난 1965년 수하르토 정권시절 발생한 50만~100만명 학살사건을 파헤치는데 노력하고 있다. 뎀보는 지난 2013년 학살 당시 생존자 증언과 가족 인터뷰 관련 서류와 인쇄물을 확보한 뒤 대서특필했다.

만~100만명 학살사건을 파헤치는데 노력하고 있다. 뎀보는 지난 2013년 학살 당시 생존자 증언과 가족 인터뷰 관련 서류와 인쇄물을 확보한 뒤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올바른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살 피해자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5·18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헤르민씨의 설명이다.

이는 뎀보가 5·18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다.

헤르민씨는 “지난 2013년 광주인권상 시상식 때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큰 희생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민주주의의 증거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당시 정부와 행사위원회간 5·18 기념식 행사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리를 갖고 진실만 추구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몇해 전부터 인도네시아 대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자들은) 여러 위협적인 요소가 있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용기를 버리지 않는다”며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한다”며 “(젊은이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뤄낸 한국의 민주화, 이것이 바로 5월 정신 아니겠는가. 광주(한국)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에 성공한 만큼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1년 창간한 인도네시아 첫 독립언론...일간지·TV 등 다양한 매체

뎀보는?

인도네시아 시사 주간지 ‘뎀보’(Tempo)는 지난 1971년 3월 6일 1호가 창간됐다. 창립자는 고나완 모하마드(Goenawan Mohamad)와 유스릴 달리누스(Yusril Djalinus)다.

이 매체는 정치 등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인도네시아의 첫 출판물이다. 목표는 정권의 탄압에 억눌린 기성 언론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다. 또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도 이들의 발행 목적이다.



뎀보는 탐사보도 전문인 주간지를 비롯한 일간지, 포란 뎀보, 뎀보 TV 등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매체는 정치·경제·사회 등 시사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 이면에 숨겨진 내부를 집중 취재·보도하는 게 특징이다. 뎀보는 정치·경제 등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뎀보는 수하르토 정권 시절인 지난 1982년 이른바 ‘와이트 그룹’사건으로 발행을 금지당했다. 국가 안정을 저해한다는 게 발행 금지 사유였다.

취재·편집기자들은 당시 발행 금지에 저항하는 의미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독립 언론인 동맹’(Aliansi Jurnalis Independen)을 만들었다.

이후 복간된 뎀보는 지난 2010년 7월 6일 두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 피해를 입었다. 뎀보는 당시 수백만 달러가 든 경찰 간부 6명의 은행 계좌를 폭로하

는 등 경찰의 부정부패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뎀보에서 가판대 등에서 관련 보도물을 모두 사들이는 등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숨기려고 애썼으나 뎀보는 3만부를 재인쇄한 뒤 이를 배포했다.

이후 두 차례나 더 폐간조치된 뒤 복간된 뎀보는 지난 2013년 복간된 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뎀보는 현재 낡고 허름한 건물에서 새 건물로 이전하는 등 날로 사세가 확장되고 있다. 직원 수는 대략 1100명이며, 발행된 신문은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다.

한편 뎀보는 지난 2013년 부당한 권력과 부패를 고발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